

「제4회 사하모래톱 문학상 전국 공모전」 수상작

○ 수상작 현황

구 분		장르	작가명 (본명)	작 품 명	비 고
운문	대상	시	유근상 (유종인)	몰운대 시편	
	최우수	시조	윤주동	다대침사 윤희신	
	우수	시	배옥주	구평 가구프라자	
	가작	동시	김영욱	을숙도, 백조의 춤	
산문	대상	소설	문호성	몰운대의 안개	
	최우수	소설	조동신	다대포 궁녀	
	우수	동화	이선희	승학산의 하얀 거인	
	가작	수필	윤미영	정상영업중	

목 차

1. 운문 대상(물운대 시편)	1
2. 운문 최우수(다대첨사 윤희신)	3
3. 운문 우수(구평 가구프라자)	4
4. 운문 가작(을숙도, 백조의 춤)	5
5. 산문 대상(물운대의 안개)	6
6. 산문 최우수(다대포 궁녀)	24
7. 산문 우수(승학산의 하얀 거인)	42
8. 산문 가작(정상영업중)	49

몰운대 시편 - 운문 대상

유 근 상

푸른 안개와 주홍빛 구름에 가려서
근해(近海)는 거칠 거 없는 바람의 행로가 되었나
아니다 크나큰 돌부리처럼 구름에 가린 섬들에 발이 걸려
어떤 바람은 코가 깨져서 드디어는
그 누구에게도 보인 적이 없었던 몸을 드러낼 뻔 했던 곳,
안개가 서서히 밀릴 때면
그게 바람이 몸을 얻어 진솔의 옷 한 벌 갈아입는 기척이려니 싶은 새벽,
광야와 어둔 골짜기를 지나 사막에서마저 흘러고 다닌 몸
어디 내 맞는 옷이 있는가 안개의 탈의실 한켠에 선 바람을
붉은어깨도요와 백백도요와 알락도요가
큰노랑발도요마저 불러 바람의 보일락말락한 허릿살을 흘끔거릴 때
바람은 차마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몸을
안개와 구름에 가린 섬 뒤로 숨기며 산산이 흩어지듯
저 투명한 방랑기, 저 색깔을 입힐 수 없는 역마살(驛馬煞)은
도로 안개에 능놀다 부푸는 구름그림자마저 털고
몰운대의 긴 한숨처럼 묵묵한 갯바위의 정수리를 짚고 사라진다

이에 홀로 묵묵한 섬들이
안개의 주렴 너머에서
이제껏 파도와 적막의 뒷배를 자처한 섬들의 으늑한 행색을
습습한 몰골법(沒骨法)으로 몽클하게 그려내는 수묵(水墨)의 파도소리,
번지는 그 파도에 조금씩 섬의 눈썹그늘이 짙어오고
새삼 소금물에 갈퀴발이 저린 팽이갈매기의 울음도
횡축(橫軸)의 몰운대도(沒雲臺圖) 왼쪽 한귀통이에 붉은 낙관(落款)으로 찍힌다

이제 해가 서서히 떠오르면 안개와 구름 속에서 한 피붙이로 살갑던
섬들마저
저마다 떨어져선 하얀 파도를 흩어불마냥 섬둘레로 끌어다 입고

몰운대 쪽으로 갈매기를 날린다
아까 안개와 구름 속에서 봤던 거는 눈감아 주기야, 몰운대여
우리가 다시 만나려면 어슴푸레 가리웠던 그 서늘한 장막 속에서는
어눌한 여명과 눈두덩이 뜨거워지는 먼동을 기다리며
한 생애에 두 번의 풍광에 능노는 오지랴를 사는 거야
안개와 비구름에 잠겼던 섬들이 깨어나며
몰운대에게 그윽한 눈웃음을 제비갈매기떼로 대신 날리는 거였다

다대첨사(僉使) 윤흥신(尹興信) - 운문 최우수

윤 주 동

1.

임진년 그 함성에
그날의 모습으로

노을에 부서지며
소리쳐 오는 파도

쏘아라
비장한 군령
그 외침도 들린다.

2.

왜군의 침략으로
핏물에 찌든 바다

그때의 울부짖음
곶전에 생생한데

순절(殉節)한
다대첨사 윤흥신
파도 되어 묻혔나.

구평 가구프라자 - 운문 우수

배 옥 주

노부부를 내려놓은 3번 마을버스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탈길을 오른다
산변지에 둘러싸인 가구 동네
별 좋은 기슭의 ‘가구대통령’ 권장은
땀 처리 소파에 누워
노마진의 백일몽을 건너간다
길없슴 핏말을 간판처럼 끼고 서 있는
‘가나안’ 포장공장
선물 같은 박스들은
지나간 봄날처럼 겹겹 포개져 있다
비옥한 약속의 땅에서
별나비들이 젖과 꿀을 찾는 사이
사거리에 들어선 <나무마음> 공방
물푸레 책상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려는 걸까
서랍의 속마음을 펼쳐놓고
푸른 물의 생각에 잠겨 있다
구평농장을 떠난 한센인들은
어디선가 간절한 삶을 꾸려가고
문드러진 발목으로 한 생을 버티는 의자 셋
느티그늘과 개미들이 쉬어가도록
기울어진 배려를 내준다
신평을 내려다보는 옥수수밭이
건장한 어깨로 율타리를 치는 구평
토박이로 자란 칠토크는
거북섬을 향해 느린 순을 뺏어간다

을숙도, 백조의 춤 - 운문 가작

김 영 옥

먼 길을 돌고 돌아온 강물은
짙물을 만나는 을숙도에서 쉬어갑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긴 여행에 지친 철새들도 을숙도에서 쉬어갑니다

저녁이 오면
태양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갯벌 위에선
백조들의 공연이 시작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발레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얀 날개옷 입은 목이 긴 백조의 전설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백조들은 한 다리로 서서 잠을 잔다고,
발레리나의 원조가 우아한 백조라는 사실도
모른 채, 아는 척을 합니다

갈대숲이 들썩입니다,
긴 다리를 드러내고 날갯짓하는 무용수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갈대들도
하늘로 날아오르는 동작을 배우고 싶어
외발로 서서 꼬박 일 년을 기다렸습니다

몰운대의 안개 - 산문 대상

문 호 성

새벽빛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면서 해무(海霧)가 점점 짙어지는 것 같았다. 다대포진(多大浦鎭) 앞바다를 온통 뒤덮은 안개는 어느새 동쪽 두송산 자락을 따라 서서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한광국(韓光國)은 맨상투 바람인 얼굴에 와닿는 눅눅한 습기를 느끼며 서문을 지나 고깃배들이 모여 있는 부두로 걸어갔다. 돌무더기 위에 송판을 열기설기 엮어서 만든 십여 걸음 남짓한 부두에는 어른 다리통만한 굵은 말뚝이 서너 개 서 있었고 거기에는 배들과 연결된 홀줄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를 풀어 쥐고 조그만 거룻배를 끌어당긴 그는 뺏머리로 훌쩍 올라가서는 구석에 놓인 바가지로 바닷물을 떠서 돛줄 위에 두어 번 뿌린 다음 그 위에 노를 걸었다. 노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려는 준비였지만 뺏사람이라면 누구나 버릇처럼 하는 동작이기도 했다.

‘나도 이제 쓸 만한 뺏놈이 다 됐구나…….’

한광국은 막 노를 저으려다 말고 포구 반대편에 보이는 선소(船所) 쪽을 건너다보며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거기에는 이번에 통신사(通信使) 일행이 왜국으로 타고 갈 배 세 척이 나란히 물 위에 떠 있었다. 선소에서 배 짓는 일을 돕는 최돌석(崔鬪石)의 말로는 그 판옥선들은 상갑판 길이가 약 스무 걸음이고 폭이 여섯 걸음이 넘는다니 전선(戰船)에 비해 조금 큰 편이었다. 전선과는 달리 갑판 위에 사람들이 머무는 청방(廳房) 열네 칸을 기다랗게 잇대어 만든 모습이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청방 위에는 붉게 단청을 한 타루가 서 있고 다시 그 위로는 사방이 잘 보이도록 위쪽에만 포장을 둘러친 군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왜국으로 보낼 예단과 다른 짐들을 실을 복선(卜船) 세 척은 부산포 앞바다에 있고 바로 그 옆 두모포에는 통신사 일행을 안내하기 위해 왜인들의 배 십여 척이 벌써 열흘 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도 최돌석이었다. 어제 저녁

에 지친 다리를 이끌고 장림포와 다대포를 잇는 고갯길을 넘어오는 그를 본 최
돌석은 반색을 하며 자기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라고 소매를 잡아끌었다. 좀 늦
더라도 집에 가서 쉬려고 서둘러 걸어오느라 녹초가 된 한광국이 괜찮다며 한사
코 손을 내저었지만 최돌석은 막무가내였다.

“거 참, 이젠 넘어져도 집 담벼락에 코가 박힐 텐데 뭘 그리 서두르시오? 이
촌놈이 한양 얘기 좀 듣겠다는데…… 자, 갑시다.”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이야. 어디 날이 오늘뿐인가?
내일 보도록 하세.”

“어이구, 누가 짝 막힌 사람 아니랄까봐…… 좌우튼 형님 눈치없는 거 하나
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소그려.”

짐짓 험악한 표정을 짓던 최돌석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에게 얼굴을 바
싹 갖다대며 들릴 듯 말 듯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몸이 천근만근이니까 가자는 거요. 뒤뜰에 묻어 둔 술이 잘 익었는데 쌓인
노독 푸는 데는 그만한 게 없지 않소? 탄 놈들이 냄새 맡고 오기 전에 빨리 가
서 마시자는 말이요, 젠장.”

술이란 말을 듣는 순간 한광국은 귀가 번쩍했다. 조정에서 주금(酒禁)의 영을
내리는 통에 주막에서조차 내놓고 탁주 한 잔 걸치기가 어렵게 된 지 오래였다.
처음에 주상께서 하교하실 때만 해도 술을 대량으로 양조하거나 사고팔지 못하
도록 했지 제사나 손님 대접을 위해 조금씩 빚는 건 허락하였다. 그러자 이제껏
양조업을 하던 장사꾼들이 망한 대신에 사대부 집안에서 이를 핑계삼아 술을 많
이 빚어 시중에 몰래 내다파는 병폐가 생겼다. 몇 번인가 계주문(戒酒文)이 나
돌고 난 후 드디어 종묘의 제사에서마저 감주를 쓰게 되자 양반과 사대부 집에
서도 이를 따르게 되어 나라 안에서 술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상민이나 천인들에게야 금주령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농사나 물일을
하다 술 한 잔 들이키는 재미보다는 당장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는 걱정

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야무진 아낙네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한두 손가락씩 쌀을 모아 작은 항아리에 담근 술로 몰래 남편의 목을 축여 주기도 했지만 한광국의 집에서는 그조차 없었다. 형편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그의 성격이 고지식해서 만도 아니었다.

“그래도 관청 출입을 하며 녹을 받는데 어떻게 나랏법을 어긴단 말이오…….”

한광국이 푸념하듯 내뱉는 말을 듣던 그의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걱정스럽다는 듯 되물었다.

“사람들 말을 들으니 누가 술을 빚는지 찾으려고 집마다 뒤질 수도 있다던데, 혹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까? 나랏일 때문에 사람들과 척지게 될까봐 두렵네요.”

“하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테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오.”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크게 웃으며 말을 자르긴 했지만 한광국은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중인 가문인데도 그의 집안에는 선대 때부터 의관이나 역관, 혹은 서리 같은 사람이 없었다. 증조부는 남해안을 오가는 옹기배를 몇 척 사서 운영하며 돈을 벌었고, 보부상들에게 신뢰가 두터웠던 조부는 그들에게 밀천을 대주어 물건을 사고 팔며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원래 왜관이 있는 초량 부근에 살다가 다대포로 옮겨온 것도 조부 때의 일이었다. 이재에 밝았던 조부는 낙동강을 따라 오가는 장삿배들과 강 상류 안동지역의 비단, 그리고 하류인 김해에서 나는 마사(麻絲)의 시세까지 훤히 꿰뚫고 있었다. 성품이 차분하고 어질었던 부친은 물려받은 전답과 재산을 평생 동안 잘 관리하면서 자식 교육에 힘썼다.

한광국이 어지간한 양반 자제 못지않은 학문과 문장 실력을 쌓게 된 것도 순전히 이런 부친 덕택이었다. 나이가 서른을 넘어섰을 무렵 다대포 토박이면서 글을 아는 중인인 그에게는 다대포 영청의 일을 거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먼

임(面任)이라는 직책이 주어졌다. 면임의 업무가 세금을 매길 근거를 조사하는 것이다 보니 그는 호적 정리, 전답 면적 확인, 고깃배나 염전 조사 등을 저절로 겸하게 되었다. 다대포에서 태어나고 자란 데다가 이런 일까지 하면서 몇 년이 지나자 한광국은 그야말로 어느 집에 수저가 몇 벌 있는지조차 알 만큼 지역 사정에 훤히 되었다.

잡다하고 소소하지만 전부 백성과 관청의 입장이 맞닿아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 매사에 처신을 조심해야 했다. 자칫 양쪽에서 모두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데도 별다른 잡음 없이 이제껏 지내온 데는 넉넉한 집안 형편 덕도 있지만 그보다는 원만한 그의 성품 덕이 더 컸다. 한광국은 나이 많은 사람이면 깍듯이 어른으로 모시고 비슷한 연배끼리는 형님, 동생으로 허물없는 관계를 맺었으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동네 아저씨처럼 소탈하게 대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조사를 하면서도 언제나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리려 애를 써서 인심을 잃는 법이 없었다.

이미 해가 저물어 사방이 어둡다 보니 북문 부근에 있는 최돌석의 집까지 가는 데도 제법 시간이 걸렸다. 서너 길 높이의 성곽 옆을 따라 잡초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가니 흙을 발라 지은 작은 초갓집이 나왔다. 울타리는 아예 없고 지붕은 고개를 숙여야 할 만큼 낮은 데다 꺼먼 뗏짚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물씬 풍겼다. 누렇게 바랜 창호지에 구멍이 승승 뚫린 봉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앞장서 걸어가던 최돌석이 제 키보다 낮은 나무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었다.

“그런데 형님, 이번에 한양 가셨던 일은 잘 되었소?”

“글쎄, 상소문은 올렸네만…… 어찌 될지는 모르겠네.”

최돌석의 뒤를 따라 허리를 구부린 채 문을 지나며 그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문간방으로 들어간 최돌석이 부시 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 어둑한 호롱 불빛이 일렁거렸다.

“마누라는 벌써 저 방에서 애들이랑 뒹아떨어진 모양이니 내가 상을 봐오리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한광국은 헤진 거적자리 위에 무거운 몸을 앉히고는 멀거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은 채 벽에 걸린 헛대, 갈라 터진 옹이가 그대로 드러난 작은 반닫이 하나 말고는 아무 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어찌면 아내가 걱정했던 대로 자기가 이런 집들을 일일이 뒤져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느닷없이 가슴속이 먹먹해졌다.

‘전부 주상께서 살피주신 덕분이다. 그러니 나도 성총(聖聰)을 믿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뿜었다. 맡은 소임 때문에 관청을 드나들다 보니 조정의 소식에 대해서도 귀동냥할 기회가 많았다. 예전에 술과 주정에 대한 금령과 함께 주상께서 내린 전교 속에도 백성에 대한 배려는 놀랄 만큼 치밀하게 담겨 있었다.

‘……사정에 밝은 면임으로 하여금 술을 수색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하지만 그들이 백성들을 침학(侵虐)하는 일이 없을지 어찌 알겠는가? 무릇 어떤 일에 대한 권한을 잡으면 농간이 생기기 마련이니 그건 안 될 일이다. 만약 이를 빙자하여 향리에서 폐단을 끼치는 자가 있으면 법조로 하여금 각별히 다스리도록 하라. 그리고 주정을 부린 자에게 속전(贖錢)까지 징수함은 너무 지나치니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술을 대량으로 빚는 부류들만 규찰하여 바로잡는다면 소민(小民)들이 외람되게 술을 빚어 파는 일은 저절로 그칠 것이다…….’

“허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똥히 하고 계시오? 자, 한 잔 합시다. 안주가 영 부실해서 송구하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최돌석이 손에 든 술상을 방바닥에 내려놓으며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귀 떨어진 개다리소반 위에는 거뭇한 오지병 하나와 사발 두 개, 그리고 시퍼런 열무김치 한 그릇과 마늘장아찌 종지 하나가 달랑 놓여 있을 뿐

이었다. 바닷가인데도 생선 한 마리 없는 초라한 술상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한광국은 이상하게도 이제껏 뱃속을 후벼파던 심한 공복감이 금세 달아나는 것 같았다. 그런 마음을 알 리 없는 최돌석은 사발 두 개에 술을 붓자마자 뭐라 할 틈도 없이 자기 잔을 입으로 가져가더니 별컹별컹 들이키기 시작했다. 요란하게 오르내리는 목젓을 멀뚱하게 쳐다보다가 한광국은 마지못해 사발을 들어 천천히 두어 모금 마셨다. 입안에서 시큼하면서도 쓴맛이 감도는 걸 보니 쌀과 잡곡을 되는대로 섞어서 빚은 술이 틀림없었다.

“캬아, 좋다…… 이거, 얼마만에 누룩맛을 보는 건가…….”

입가에 묻은 술방울을 혀로 핥으며 열무김치 한 점을 집어들던 최돌석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형님, 사신들이 왜국으로 타고 간다는 저 배 말이오. 내가 옆에서 보니 아무래도 좀 께름칙한 데가 있소. 내가 선소에서 목공일을 돕다가 치목을 유심히 보았는데…… 나뭇결이 비스듬히 가로로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응? 그럼 거기에다 횡절목(橫截木)을 썼단 말인가?”

최돌석이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치목(鴟木)이란 키를 잡아 주는 타주 부분이라서 언제나 물살의 힘을 받는 부분이었다. 그 때문에 세로로 결이 난 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굵은 결 골라 쓰는 곳인데 만약 횡절목이 쓰였다면 난감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일부러 그러기야 했겠소마는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통영 쪽에서 급히 나무를 베어 보내느라 찬찬히 살피질 못한 것 같소. 무게가 이천 근에 가까운 재목을 굵기까지 맞춰서 고르다 보니 결을 살피지 못한 거지.”

“그럼 누구한테 얘기라도 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냐고 말을 하려다 한광국은 그만 입을 다물었다. 그 사이를 못 참고 남은 술을 깡그리 비운 최돌석이 쿵 소리가 나게 빈 사발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수염에 묻은 허연 술방울을 닦으려고 하지도

않고 허공을 쳐다보며 한광국이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다.

“예비 치목이 세 개가 있으니 별 탈이야 있겠소? 그리고 내 말을 누가 들으려고 해야 말이지. 젠장, 가진 것 없어 먹고살려고 물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내놓고 천인 취급을 당하는 판이니…….”

한광국이 뭐라 대답할 말이 없어 슬며시 자기 잔을 들자 최돌석은 그조차 못마땅하다는 듯 부쩍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뼈대 있는 양반은 아니지만 우리 집안이 옛날에는 그래도 괜찮게 살아온 상민이란 말이오. 염병이 돌아 죽고, 흉년이 들어 망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이 꼴이 됐지만 나도 명색이 우리 집안 종손이고 말이오. 그런데 이제는 정월 초하루에 조상 제사도 못 모시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소?”

최돌석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오지병을 들어 자기 사발에 술을 붓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급히 마신 술이 때이른 주정을 불러오는 듯했지만 한광국으로서도 그 속사정을 아는 터라 말리기도 어려웠다. 새해 첫날이면 다대포에 사는 백성들이 수령에게 세배를 드리는 신정관아망배(新正官衙望拜)는 오래 전부터 내려온 관례였다. 옛날부터 왜구의 침범이 잦은 지역이다 보니 임진왜란 이후 조정에서는 국방의 요충지라 해서 다대진과 북방 만포진에는 특별히 정삼품 당상관을 첨사(僉使)로 임명했다. 게다가 군영과 선소에 더해 봉화대까지 있다 보니 관청의 일을 돕는 일수(日守)에다 수군(水軍), 배를 수리하는 조졸(漕卒), 거기다 봉수군(烽燧軍)까지 한데 뒤섞여 있었다. 이렇게 관아에 속한 천역이 많다 보니 새해 초하루에 다같이 첨사에게 세배를 드리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깃배를 타거나 그물질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상민, 심지어는 물일을 하지 않고 작은 밭떼기에 농사를 지으며 사는 백성들마저 거의 반강제적으로 세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게 문제였다. 정월 초하루 아침에 관아를 찾아가려면 자기 조상 제사는 어쩔 수 없이 선달 그믐날 밤에 지내야만 했다. 공복에 들이

킨 술이라 곧바로 취기가 오르는 것 같아 그는 약간 체머리를 흔들며 느릿하게 말을 꺼냈다.

“신정관아망배의 폐습도 그렇지만…… 미역 따는 사람들에게마저 세금 걷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면해주십사 하고 상소를 올렸다네.”

“그래서…… 잘 될 것 같소?”

최돌석은 마치 그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듯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며 입으로만 되물었다. 한광국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입맛만 다시며 다시 술잔을 들었다.

“그것 보시오. 형님이 상소 올리는 거나 내가 누굴 잡고 얘기하는 거나,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는 매한가지 아니오? 그러니 뭐가 바뀌겠소?”

고작 두어 사발의 탁주를 마셨을 뿐인데도 최돌석의 집을 나올 즈음 만취한 듯 다리가 휘청거렸던 건 한양에 다녀오느라 쌓인 노독 때문만은 아니었다. 집에 들어선 한광국은 반갑게 맞는 아내의 인사도 받는 등 마는 등하고 곧장 이불을 펴고 푹아떨어졌다. 밤새 어지러운 꿈만 꾸며 얇은 잠 속에서 해마다 새벽에 간신히 눈을 떴을 때는 이마와 가슴팍이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베갯머리에 있는 수건을 집어들어 땀을 닦고 난 그는 거무스름한 호롱불 그늘음이 낀 바람벽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벌써 여섯 번째 올리는 상소인데…… 정말 이대로 흐지부지 끝나는 건가.’

한광국은 일어나 머리맡에 놓인 문갑을 열고 안에서 종이 두루마리 하나를 끄집어냈다. 옛날에 부친에게 은혜를 입었던 육의전 상인을 통해 용케 사간원 정언(正言)을 소개받은 게 삼 년 전의 일이었다. 이제까지 그를 통해 대궐로 잇달아 상소문을 넣었지만 별다른 결과를 얻지는 못했던 것이다. 한광국이 꺼낸 두루마리도 보름 전에 한양에서 정언을 찾아가 건넸던 상소문의 초안이었다.

“또 올라오셨소? 워낙 뜻이 가륙해서 이렇게 받기는 하지만 이제껏 아무 회답도 없으니 지켜보는 내가 다 민망하오. 허어, 참…….”

한광국이 내미는 상소문을 받아들며 그는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다. 그러다가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렵게 입을 연 그의 얘기를 듣는 순간 한광국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혹시라도 듣고 마음 상하지는 마시오. 저번 상소를 전하고 나서 내가 얼핏 들은 말이…… 내용은 진지하나 글이 매우 모호하여 시골 서생이 꾸밈하는 것처럼 종잡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주상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주위에서 흘러나온 얘기지만.”

불현듯 엿저녁에 쇠돌석이 쥐어박듯 내뱉던 말이 떠올랐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는 매한가지 아니오……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창호지를 희뿌옇게 물들이는 새벽빛 속에서 손에 쥔 상소문 초안을 내려다보며 아득한 절망감을 느꼈다. 자기 땀에는 가진 한문 실력을 다 짜내어 쓴 글인데도 시골 서생의 꾸밈처럼 종잡을 수 없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막막함이 가슴속을 채우고 있었다.

‘……포구의 백성들에게는 배 한 척에 토지세, 어장세 외에도 선세(船稅)가 따로 붙어 모두 세 가지나 되며 어염세(魚鹽稅)에 이르러서는 그 해가 더욱 심합니다. 무릇 고기잡이나 소금 굽기란 때에 따라 이익이 들쭉날쭉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장에 기록된 배의 크기와 척수, 염전의 면적과 등급에만 맞춰 세금을 거두고 금액 또한 매년 늘어만 왔습니다. 이 때문에 근래 전주, 전주들은 배와 염전 유지에 더 이상 돈을 들이려 하지 않으니, 그저 몸을 놀려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인 선인(船人)이나 어한(漁漢), 염부(鹽夫)들이 그 비용을 무슨 방법으로 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선척(船隻)은 낡고 어장과 염전은 황폐해지며 백성들은 일하기를 바라면서도 저절로 실업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호구지책을 위해 갯가에서 미역과 해산물을 따는 것에조차 해채세(海採稅)를 매기니 이야말로 인족(隣族)의 침징(侵徵)보다 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단지 물일을 한다는 이유로 상민이면서도 천역 취급을 당해 신정관아망배를 하느라

조상 제사조차 제때 지내지 못하니 백성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배도 모두 부수고 염전도 전부 갈아엎어야 한다’는 말조차 나오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징세를 경솔히 바꾸기가 어렵다면 이 두 가지 폐습만이라도 당장 없애서 장차 보전하기 어려운 근심이 없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광국은 상소문 초안을 도로 문갑 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문을 열고 대청으로 나가자 후텁지근한 바람이 목덜미를 헤치고 들어왔다. 새벽 어둠 속에서 야트막한 담장 너머로 멀리서 윤곽만 드러내고 누운 물운대가 흐릿하게 보였다.

‘이왕 일찍 깬 김에 그물에 걸린 게 있나 가봐야겠군.’

물운대 주위로 뿌옇게 끼어 있는 안개를 보자 웬지 가슴이 답답해져서 그는 새벽 그물이나 보러 가야겠다는 구실로 바닷가로 나와 이제 막 거룻배에 오른 것이었다. 잠시 선소 쪽을 바라보던 그는 손바닥에 침을 뱉어 양손을 비빈 후 노를 잡고는 마치 어지러운 가슴속을 털어내거나 하려는 듯 재빨리 젓기 시작했다. 물운대를 돌아 서쪽으로 조금 나가면 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하류 부근에 늘 그물을 쳐 두는 곳이 따로 있었다. 어민은 아니지만 다대포 토박이로 살다 보니 열두어 발 정도 작은 그물을 쳐 두었다가 반찬거리를 구하는 게 자연스런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 오늘도 물고기 몇 마리만 건진다면 노 젓는 품은 대강 벌충이 되는 셈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노를 저어 포구를 벗어나서 물운대를 옆으로 끼고 돌아 서쪽으로 향했다. 때마침 물살도 배를 알맞게 밀어주어 그물을 쳐 둔 모래톱 앞바다로 가는 데는 별 힘이 들지 않을 것 같았다. 해안에서는 자욱해 보이던 안개도 막상 바다로 나오니 조금씩 열어져 시야를 많이 가리지는 않았다. 어느새 숨이 약간 가빠지며 이마에 땀에 습는 걸 느끼고 한광국은 노 젓는 손길을 늦추었다. 등 뒤에서 물운대가 안개 속에 몸을 숨긴 채 자기를 뻔히 훑쳐보는 듯한 착각이 자꾸 들었다.

‘팔월에 안개가 이렇게까지 짙게 끼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작년부터 날씨가 아주 이상해…….’

그는 구부렸던 허리를 잠시 펴고 손을 들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심한 가뭄이 호남과 영남 지방을 함께 덮치는 통에 조정에서 기우어사(祈雨御史)를 보내어 두 곳의 사직단에서 기우제까지 지낸 게 작년 윤오월 무렵이었다. 하지만 사정은 해가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나뻣고 결국 올해 봄에는 관북 지역의 배들까지 동원하여 삼남(三南)으로 구휼 곡식을 보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해도 잇달아서 삼월에는 온 나라에 황사가 덮쳐 낮에도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어둡더니 오월에는 가뭄에 겹쳐 뜨겁고 건조한 바람까지 불었다. 유월에는 북쪽 지방에 때아닌 우박이 쏟아지고 도성에는 심한 폭우가 내려서 무너진 민가가 이백 호를 넘었다. 게다가 함경도와 황해도에는 메뚜기떼가 덮치고 벌레가 들끓어 따로 제사까지 지내야 할 만큼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다.

‘어쩌면 작년에 대궐에서 있었던 흉사 때문인지도 모르지. 그 일이 윤오월에 일어났으니까…….’

한광국은 무심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놀라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작년에 세자가 서인으로 폐해진 다음에 뒤주 속에 갇혀 있다가 결국 절명했다는 소문이 나라 안에 퍼졌지만 주상의 엄명에 의해 누구도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없었다. 질병이 생겨 천성을 잃은 세자가 발작할 때면 궁비나 환시를 죽여 주상께서 엄히 책망했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통에 결국 죽음까지 맞게 된 비극을 신민(臣民) 모두가 안타까워했을 뿐이었다. 올해 일흔을 맞는 주상께서는 그런 흉사를 치르고도 백성을 살피는 데 전혀 소홀함이 없었다.

“한 개의 날전복도 포민(浦民)이 고생하여 탄 것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 어찌 내 입맛에 즐겁다고 먹을 수 있겠는가?”

전복 진상을 멈추라는 영과 함께 전해진 주상의 말씀을 듣던 순간 한광국은

울컥하는 느낌을 가라앉히기가 어려웠다. 네 번째로 올렸던 상소마저 대궐에서 벌어진 흥사에 묻혀 버리는 바람에 이제 포기하려고 하던 참이었지만 다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기 때문이었다.

‘바닷가 백성의 사정까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내 상소도 충분히 받아주실 것이다.’

그건 몇 달 전에 다대첨사 전명좌(全命佐)와 얘기를 나눌 때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감정이었다. 다섯 번째 상소를 올리고 돌아온 그가 밀렸던 호구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마침 동문을 나서던 전명좌와 딱 마주쳤을 때였다.

“어이구, 한 좌수 아니신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소, 허허. 나는 지금 장림포에 좀 갔다오려는 길인데, 이번에 한양은 잘 다녀오셨소?”

이제 나이가 마흔을 넘은 전명좌는 허리를 굽히는 한광국을 보자 호탕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자기와 두 살 터울에다 다대포진 안의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 하는 그를 전명좌는 평소에도 일부러 좌수(座首)라 높여 부르며 허물없이 대해 주고 있었다. 한광국은 주립(朱笠)을 쓰고 남빛 철릭 차림에 목화를 신고 말을 탄 전명좌를 올려다보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무탈하게 다녀왔습니다만…… 방자하다는 꾸지람을 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어, 아니오. 조금도 껄념치 마시오. 그래, 이번에도 신정망배와 해채세에 대한 상소를 올린 거요?”

전명좌가 그를 안심시키려는 듯 손에 든 채찍을 흔들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지만 한광국은 그저 말없이 허리만 깊숙이 숙였다. 그러자 귓전에 전명좌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다시 날아왔다.

“허허, 한 좌수나 나나 나라를 생각하는 충심이야 똑같지 않겠소? 다만 그 마음이 향하는 바가 서로 조금 다를 뿐이겠지.”

“…….”

“그러나 저번에도 말했지만, 내 뜻을 다시 한 번 말하겠소. 이젠 한 좌수를 나무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입장을 분명히 밝혀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함시오.”

그는 고개를 들어 전명좌를 쳐다보았다. 어느새 전명좌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말끔히 가셨고 말투도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나로서는 민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방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소. 다대포진은 국방의 요충지이고 이 안에는 군사들과 함께 군무(軍務)를 돕는 하속(下屬)들이 많다 보니 그들의 사기와 결속도 무엇보다도 중요하오. 나는 일반 상민들까지 정월 초하루에 세배를 오라고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일부러 말할 생각도 없소. 외적이 침범한다면 어차피 관민이 일심동체가 되어야 하니 말시오. 지난 임진왜란 때 여기서 장렬하게 전사하신 윤희신 첨사와 백성들을 되새겨 보면 더욱 그렇소. 일년에 단 하루, 관민이 일체가 되는 게 그렇게 큰 폐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소. 우리 벼슬아치도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망궐례(望闕禮)를 올리지 않소?”

전명좌의 목소리에 점점 열기가 실리는 걸 느끼자 한광국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해체세를 없애야 한다는 건 나도 동감이지만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소. 지금 우리 다대포진에는 천 명이 넘는 수군들이 한 달마다 체번(遞番)하며 있는데 제각기 집을 오갈 때도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하오. 그런데 근래 기황(饑荒)이 들어 몇 홉 안 되는 쌀마저 구하기 어렵다 보니 해산물에서 거두는 세금으로나마 이에 보탬 수밖에 없는 실정시오. 나 역시 이를 바꿔 보려고 장계를 올렸지만 우리나라 군사 중 제일 고역인 수군을 돌봐야 한다는 조정의 의견이 높아 어쩔 수가 없었소.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전명좌가 잠시 말을 끊고는 잠시 허공을 올려다보았다. 한광국은 문득 그의 입에서 들릴 듯 말 듯 흘러나오는 한숨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이게 우리 다대포에만 있는 병폐라면 내가 부족한 탓이라 하겠지만 우리나라 바닷가의 번진(藩鎭)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 어찌하겠소? 이제까지 한 좌수가 상소를 올리는 걸 못 본 체한 것은 나도 못 하는 일을 대신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늠했기 때문이오. 그렇지만 이 점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변장(邊將)인 나로서는 군정이 민생고보다 시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오.”

“사또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전명좌가 탄 말발굽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한광국은 깊이 숙인 허리를 들지 않았다. 그랬다간 자칫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일그러진 표정을 그대로 내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관민 결속이 중요하다, 군정이 민생보다 우선이다…… 첨사로서 하는 전명좌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순순히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뭔가 불편했지만 한광국의 입장에서 감히 그 말을 반박할 수는 없었다.

‘나라와 백성을 과연 그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걸까.’

축축하게 목덜미를 감싼 안개가 조금씩 몸의 열기를 식혀 주는 걸 느끼며 그는 다시 천천히 노를 젓기 시작했다. 멀찌감치 뒤쪽에서 자기를 훑쳐보는 것 같던 몰운대가 물결 속에서 흔들거리며 조금씩 멀어져가고 있었다. 동래로 흘러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운대와 몰운대 두 곳을 다 구경하고 나면 어느 것이 더 낫다는 실없는 말다툼도 심심찮게 벌어지곤 했다. 한광국은 그런 우스꽝스런 싸움에 끼어들 때마다 간단한 말로 사람들의 입을 막곤 했다.

“아니, 그러면 댁들은 영남루가 더 낫소, 아니면 축석루가 더 낫소?”

해운대와 몰운대조차 서로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군정과 민생을 그렇게 맞대어 따질 수가 있는 건가…… 물결 사이로 그물을 쳐 둔 자리를 나타내는 붉은 천이 달린 나무통 두어 개가 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배가 물살을 타고 천천히 그곳에 닿자 그는 노를 뱃전에 놓고 물속으로 손을 넣어 조심스레 그물을 끌어올렸다.

“……?”

질긴 삼줄을 꼬아 성글게 코를 엮은 그물 속에는 시퍼런 해초 몇 움큼과 길이가 반 뼘도 안 되는 치어 서너 마리만 걸려 있었다. 그는 헤식은 웃음을 머금은 채 그물을 도로 던지고는 일어서서 다시 노를 잡았다. 이상스레 무겁게만 느껴지는 노를 저어 배를 되돌리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갖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뒤섞인 채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침 반찬거리를 구하지 못해도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데…… 하물며 양식이라도 바꾸려고 허기진 몸으로 바닷속을 헤매며 미역을 따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세금과 세배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나라란 도대체 무엇인가…… 노독이 풀리지 않은 몸으로 새벽부터 노를 젓다 보니 빈속에서 연신 시큼한 숨결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마치 그런 자신에게 화풀이라도 하는 것처럼 거칠게 노를 저었다. 해운대와 몰운대, 조금 전에 떠오른 그 말이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늘어붙은 듯 떠나지를 않았다.

‘군정과 민생, 그게 과연 해운대와 몰운대처럼 나누어 비교할 수가 있는 걸까.’

나라가 백성을 품어 준다면 백성도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 때 다대포진을 지키던 윤희신 첨사는 일찍이 진천 현감을 지내다가 문자를 읽지 못한다고 파직되는 수모까지 겪었지만 끝까지 왜적과 싸우다 순절했다는 사실은 한광국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설움을 겪은 분이라 백성의 아픔을 알았고 그래서 사람들도 기꺼이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 게 아닐까…… 그러자 한양에서 상소문을 건네받던 정언이 조심스레 전하던 말이 떠올랐다. 상소의 내용은 진지하나 글이 매우 모호하여 시골 서생이 푸념하는 것처럼 종잡을 수가 없다고 하였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헉헉대며 노를 저어 대던 손길을 멈추고 대답을 구하기라도 하듯 멍하니

안개 속을 쳐다보았다. 자신이 닦은 한문 실력을 있는 대로 쥐어짜낸 글마저 종잡을 수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한광국은 문득 오 년 전 동래부사를 지냈던 조엄(趙曷)이 물운대와 해운대를 두고 남긴 글을 기억했다.

‘물운대는 앞에 놓인 작은 섬들이 아늑하게 아름답고 고와서 흡사 아름다운 여자가 화초밭 속에 화장하고 있는 것 같으며, 해운대는 전면이 광활하여 바로 대마도와 맞대고 중간에 가린 것이 없어 마치 현철한 장부가 흥금을 드러내 놓은 듯하다…….’

이제 곧 통신사로 왜국에 갈 조엄은 윤흥신 첨사가 충렬사에 배향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직접 읍지(邑誌)를 살피고 다대포를 들리기까지 하며 윤 첨사를 배향하려 애쓴 사람이라 한광국도 잘 알고 있었다. 자기로서는 그런 빼어난 글솜씨를 감히 흉내도 못 낼 거라며 쓴웃음을 짓는 순간 느닷없이 그의 머릿속으로 엉뚱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한문으로 상소를 올려서 안 된다면…… 언문으로 괘서(掛書)를 붙이면 어떨까?’

주상께서는 이름을 숨긴 채 문이나 답장에 내거는 괘서에 대해서 의외로 관대하시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재작년에 대구부(大邱府)에서 어떤 도적이 영문 밖 기둥에 붙인 괘서를 경상 감사가 장계와 함께 올려보냈을 때도 승정원에 명하여 그걸 바로 불태웠다고 했다. 그리고는 추후 모든 익명서는 즉시 물에 던지거나 불에 태우라고 명하시면서 죄인을 잡으려면 그걸 보전해야 한다는 신하들에게 따로 전교를 내려 타일렀다고 했다.

‘진실로 조정에서 하는 일들이 사리에 맞고 고르게 적용된다면 비록 흉도라 해도 마음을 고쳐 원망이 녹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괘서의 변(變)이란 위에 있는 자가 그 근본을 잘 다스려 말단을 바로잡지 못한 탓에 일어나는 법이니 치화(治化)에 힘쓰지 않고서 단지 그걸 쓴 자만 잡으려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만약 대궐 문에 붙인다면…… 속으로 중얼대던 한광국은 언뜻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도망칠 생각도 없지만 붙잡힌다면 주상께서 친국을 하실 게 분명하니 어찌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불경죄는 면할 수 없으니 사죄(死罪)를 받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유배는 각오해야 할 것 같았다.

‘왜적과 싸우다 죽는 것만이 순절은 아닐 거다. 그러니 한 번 부딪쳐 봐야지…….’

그는 입술을 꼭 다물며 스스로를 떠밀 듯 양손에 힘을 주어 다시 천천히 노를 젓기 시작했다. 거룻배 자취가 긴 꼬리처럼 남은 바다 위로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동녘이 뿌옇게 밝아오는 걸 보니 곧 해가 뜰 모양이었다. 이제껏 왔던 뱃길을 되밧아 물운대를 지나 포구 안으로 들어서니 아까는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던 솔섬이 또렷이 시야에 들어왔다. 한광국은 알지 못할 어떤 힘에 끌리듯 웅기종기 모여 있는 배들 사이를 지나 부두에 닿았다. 그리고는 기운찬 발걸음으로 부두를 빠져나와 물기 가득한 길섶을 던지 않도록 조심하며 집 쪽을 향해 걸었다.

그가 서문이 바라보이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무렵이었다. 이른 시간인데도 예닐곱 명의 사람이 문 앞에 모여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한광국은 묘한 호기심에 이끌려 걸음을 재촉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며 큰 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 다들 아침부터 그렇게 모여 계시요?”

“이거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람들 중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그를 맞으며 역시 큰 소리로 대답했다. 한광국의 집 근처에 사는 돌쇠아비였다.

“이거 좀 보시오. 이제는 미역을 따든 해삼, 전복을 줍든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해요!”

돌쇠아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성벽에는 방문 하나가 내걸려 있었다. 큼지막

한 백지 위에 씌어진 글자들 중에 미처 마르지 않은 먹물이 거미줄처럼 가느다랗게 흘러내리는 것도 보였다.

‘구폐지령(救弊之令)에 의해, 모든 포민들에게 해채(海採)에 따른 징세를 면하며, 모든 진영(鎭營)에서 신정관아망배(新正官衙望拜)의 습속(習俗)을 폐한다.’

“그럼 이제 정월 초하룻날 조상 제사도 모실 수 있게 된 거지요? 이런, 고마울 데가 있나!”

돌쇠아비가 다시 외쳤지만 그는 듣고 있지 않았다. 짙막한 방문을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던 어느 순간 문득 눈앞에 보이는 글자들이 뿌연게 흐려지기 시작했다. 한광국은 그게 이제 막 두송산 위에 떠오른 해가 뿜어내는 늦여름 햇빛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다대포 궁녀(弓女) - 산문 최우수

조 동 신

“이랴!”

나해는 서둘러 말을 돌리며, 뒤를 향해 다시 활을 당겼다.

뒤에서 화약이 터지는 소리가 동시에 여러 번 들렸다. 그러자 그녀가 탄 말이 놀라 휘청거렸다.

“정신 차려! 너는 침사 나리의 말이잖아!”

나해는 말을 다그치다시피 하며 달렸다. 왜군들은 금방 그녀를 따라잡을 듯 쫓아왔다. 무엇보다 그녀는 혼자고 저들은 여럿이었다. 하지만 반드시 해내야만 했다.

“되도록 많이 와라. 되도록!”

나해는 산길 쪽으로 가자 말 속도를 늦췄다. 그때였다.

“썩!”

등에 강한 충격이 왔다. 조총이 분명했다. 나해는 비틀거리다가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풀숲에 떨어진 나해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몇 달 전의 일이 생각났다.

“여기이옵니다!”

나해는 춘돌을 안내했다.

“괜찮으냐?”

“여긴 저녁쯤에 군사들이 한 번 순라 돌고는 그냥 가옵니다! 요즘 산에서 군사 훈련을 많이 해서 산에서 연습하긴 어려운데, 여기는 병력이 적어서 여기서 하옵니다!”

나해는 웃으며 활을 들었다.

“좋다. 잘 해 보라.”

춘돌은 근처를 둘러보았다. 나해가 자세를 취하자 그는 눈을 크게 떴다.

“호오, 자세가 제법 잡혀 있는데?”

곧, 그녀의 화살이 활시위를 떠났고 정확히 모래 탑에 박혔다.

“어떻사옵니까?”

“계속 쏘 봐라.”

나해는 자신의 활 솜씨를 그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역시 그녀의 의도대로, 화살 열 발은 모두 그녀가 쌓은 모래 탑에 정확히 맞았다.

“어떻사옵니까?”

“월, 녀석.”

그녀는 자신이 생각해도 계속 실력이 느는 것 같았다. 전에는 한쪽에 서서 바람을 등지고 쏘았는데, 이제는 탑돌이를 하듯 주변을 돌면서 쏘아도 맞았다. 거기다 이번에는 파도 때문에 자칫하면 넘어질 수도 있는, 바닷물에 발을 담근 채였는데도 정확히 표적을 맞힐 수 있었다.

“거기, 너희들은 뭐냐?”

그때였다. 갑자기 낮으면서도 엄격한 목소리에, 나해도 춘돌도 놀랐다.

“무엇이지?”

등불을 든 군사,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서 청철릭을 입은 채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이 다대포 군영의 총책임자인, 첨사 윤흥신(尹興信)이었다.

“아니, 너는, 관비가 아니냐?”

윤흥신의 동생 윤흥제(尹興悌)가, 등불에 비친 그녀를 알아보고 말했다. 그녀는 어두운데도 눈앞이 더 캄캄해졌음을 느꼈다.

“아니, 관비가 감히 활을 쏘다니! 이걸 어디서 난 것이냐? 보아하니 아이들이 장난하려고 만든 건 아닐 텐데!”

“아, 아니옵니다!”

“됐네.”

윤흥신이 춘돌을 보며 말했다.

“너는 무엇이냐?”

“죄, 원네는, 사냥꾼이옵니다. 이름은 춘돌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이 아이에게, 활을 가르쳐 주고 있었사옵니다.”

“그래? 활을 꽤 잘 쏘는 모양이구나. 이 모래 더미를 표적으로 삼고 쏘았느냐?”

윤홍신이 나해를 보며 물었다.

“그, 그러합니다. 소, 소녀, 하오나…….”

“그래? 허허, 화살도 살상은 할 수 없겠지만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활도 괜찮고. 네가 만들었느냐?”

윤홍신이 나무로 만든, 뭉툭한 화살촉을 보며 말했다. 그의 말대로 그 화살로 싸울 수는 없었지만, 모래 탑에 박아 넣기에는 충분했다. 그 활과 화살을 만든 사람은 춘돌이었다.

나해는 다대포 관기의 딸로서, 어머니가 일찍 죽자 관비가 되었다. 다대포는 해안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진영이라서 무관들이 많았다. 그녀는 그들을 보면서 자랐고, 활 쏘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자신도 활을 쏘고 싶었다.

어느 날, 그녀는 빨래터 근처에서 사냥꾼들이 활을 쏘는 모습을 보았다. 대부분의 사냥꾼은 짐승을 잡을 때 덩을 쓰지만, 가끔은 활을 쓰기도 했다. 그런데 그중 꽤 큰 활을 든 사람이 눈에 띄었다.

“저기요, 왜 그렇게 큰 활을 쓰시옵니까?”

나해는 자신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겨 물었다. 키가 크고 인품이 좋아 보이는 그 남자는 그녀를 보고는 웃더니 대답했다.

“아, 작은 활은 비싸서 그런다.”

“작은 활이 비싸옵니까? 큰 활이 더 비싸지 않사옵니까?”

“작은 활은 여러 재료를 합쳐서 탄력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비싸다. 이걸 대나무로만 만든 거라서 싸지만, 재료를 적게 쓴 활은 좀 크게 만들어야 한다.”

그 사냥꾼의 이름은 춘돌이었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사냥꾼이 되고 싶다고 그 무리에 끼게 되었다.

나해는 그 뒤로도 몇 번 그를 만났고 어느 날, 춘돌에게 남는 활 하나라도 있으면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 자신도 한 번 활을 쏘보고 싶어서였다. 그는 곧 그녀

가 쓰기에 알맞은 활을 하나 새로 만들어 주었다. 춘돌이 연습용으로 쓰던 대나무 활과 똑같았다. 조금 특이하게도 군관들이 쏘는 활과는 달리, 손잡이 위쪽이 아래쪽보다 약간 길었다.

나해는 춘돌에게서 활을 배우는 한편 매일 밤, 모래톱으로 나가서 모래로 탄을 쌓은 뒤 그것을 표적 삼아 쏘는 연습을 했다. 그러다가 춘돌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몰래 데려왔는데, 그만 들키고 만 것이다. 그것도 첨사에게 직접.

“왜 활을 쏘고 싶은 것이냐? 사냥하는 게 좋으냐?”

나해의 설명이 끝나자 윤희신이 물었다.

“어머, 아니옵니다!”

나해는 단지 활이 좋았을 뿐, 사냥하기는 싫었다. 그녀는 작은 동물을 아주 좋아했다.

“아니면, 전투가 좋으냐? 왜구랑 싸우든지 할 것이냐?”

“아, 아니옵니다. 소녀가 어찌 감히…….”

“그러니, 감히 관비가 활을 잡다니 이는 불손한 일이옵니다!”

윤희제가 다시 끼어들었다.

“활에는 귀천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계집아가 활 연습을 하는데도, 군사들이 아무도 몰랐던 건가? 여기 모래톱 일대는 군사들 눈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여기가 군사상 요지라는 건 다들 잘 알 텐데?”

윤희신이 뒤에 있는 군관들에게 질책하듯 말했다. 다대포는 낙동강과 통하는 길목이라 이곳이 뚫리면, 왜구들이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방어 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규모도 작고 병력도 적었다.

사실, 어느 운영이나 병력이 모자랐다. 뇌물을 받고 병력에서 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였다. 물론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라 하여 면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일 자체는 합법이었지만, 지방 수령이나 군대 지휘관들이 이를 악용하여 면포를 받아 자신이 갖고는, 실제로는 복무하지 않은 사람을 군적에 올리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희신은 첨사로 부임한 후 그러한 비리를 없애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위낙 뿌리 깊은 비리를 다 찾아내기란 어려웠다.

“아, 원래는 산에 가서 했사옵니다! 하오나, 요즘 산에서 군사 훈련을 자주 해서, 이렇게 모래톱 있는 곳에서 하고 있사옵니다!”

나해는 자신도 모르게 변명하듯 말했다.

“그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해라 하옵니다.”

“나해? 하하하…….”

나해는 갑자기 침사가 웃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일과가 끝난 저녁에 윤흥신은 나해를 불렀다. 어딘가 했더니 뜻밖에도 활터였다. 그녀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는 활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시위가 풀린 활은 완전히 둥근 모양이었다.

“활을 한 번 쏘 보지 않겠느냐?”

“예?”

“네 실력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다. 한 순(5발)만 쏘 봐라. 물론, 활을 쏘려면 시위를 걸 줄도 알아야지?”

나해는 어렸을 적 이 활터에 심부름을 왔다가 군관들이 궁술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활에 반했는데, 이곳에서 쏠 기회를 주다니, 놀랐다.

나해는 둥근 활을 당겨 시위를 걸었다. 그녀는 강한 힘을 타고나 그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침사 앞에서 활을 쏘자니 긴장되었다는 점이다. 과연 그가 왜 자신에게 활을 쏘 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침사 앞에서 쏘는 게 걱정되느냐? 활이란 쏘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 모르느냐?”

그녀의 마음을 그 새 읽었는지, 윤흥신이 한 마디 했다.

나해는 숨을 크게 내쉬고는 다시 한 번 과녁을 보았다. 그녀는 춘돌에게서 처음 활을 얻었을 때의 기쁨, 활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동안 느꼈던 보람 등을 떠올리며, 활시위를 당겼다. 표적은 군사들이 쏘는, 멧돼지가 그려진 과녁이었다.

“관중이오!”

저편에서 누군가가 깃발을 흔들며 말했다. 과녁에 정확히 맞았다는 말이다. 나해는 남은 네 발을 쏘았다. 그때마다 저편에서 명중을 알리는 깃발이 휘날렸다.

“대단한 솜씨구나. 다섯 발이 전부 멧돼지 코에 맞았다.”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이 오며 말했다. 윤희제였다. 과녁에 맞히기만 해도 대단한데 그 정도라면 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왜, 네 이름을 듣고 웃었는지 아느냐?”

윤희신이 말했다.

“소녀 이름이 나해(螺鹽), 소라젓갈과 음이 같아서 그러신 거 아니옵니까?”

“그건 아니다. 내가 관기에게서 태어났다고 들었다. 어머니가 지어 준 이름이냐?”

그녀는 바닷가 모래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바다를 붙잡아라’ 라는 뜻으로 잡을 나(拏) 자, 바다 해(海) 자를 써서 그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사람들은 다 그녀를 소라젓갈이라고 놀리곤 했다.

“이옥 장군의 할아버지 이름이 이나해(李那海)인데, 사나해(似那海), 즉 ‘나해 같은 사람’ 이라는 말이 변하여 ‘사나이’ 가 되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계집아이 이름이 나해라니 조금 이상했다. 하지만, 오늘 네 활 솜씨를 보니 웃기만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이나해라니, 모르웁니다. 이옥 장군도 모르웁니다.”

나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윤희신은 빙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옥은 전조(고려) 말의 뛰어난 무관이었다. 활쏘기 시합에서 우승해서 왕에게 말을 상으로 받았을 정도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죄를 얻어서 처형당하고 그는 강릉 관아의 관노가 되었다.”

“어머나.”

“그런데 공민왕 21년(1372년) 어느 날, 강릉에 왜구가 쳐들어왔다. 강릉 부사는 어질기는 했지만 적을 막아낼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부사는 물론 군사들까지 모두 달아났는데, 이옥은 혼자서 왜구를 상대로 싸웠다.”

“왜구가 사납고 칼도 잘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혼자서 싸웠사옵니까?”

나해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녀는 다대포 출신인 만큼 어렸을 적부터 왜구

에 대한 이야기를 술하게 들으며 자랐다.

“작전을 잘 썼지. 우선 왜구 본거지에 가서 싸움을 건 다음에 그들이 쫓아오자, 산으로 유인했다. 왜구들이 쓰는 활은 낡시대만큼이나 길기 때문에 험한 산에서 쏘기는 불편하고, 사정거리도 고려의 활보다 훨씬 짧았다. 이옥은 그 점을 이용하여 산 여기저기에 미리 화살을 꽂아놓고 종횡무진으로 돌아다니며, 적의 지휘관들을 하나씩 쏘아 맞혔다. 결국 왜구는 도망쳤지. 이옥은 그 공으로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강릉 부사가 되었단다.”

“우와, 대단하옵니다!”

“우리 각궁(角弓)은 물소 뿔에 대나무, 뽕나무 등 여러 재료를 섞어 민어 부레 풀로 붙여서 만드는데, 이 풀은 접착력도 좋고 재료들이 유연하게 움직이게 도와주지만, 습기를 머금으면 잘 붙지 않는단다. 일본은 조선보다 습하다. 그래서 나무 하나 혹은 두 종류로만 활을 만들곤 한다. 그런 활은 강하게 쏘려면 길이가 길어야 하지.”

“어머나……. 단지, 비싸서 나무 하나로만 만든 게 아니었사옵니까?”

“하긴, 나무 하나만 갖고 활 만들면 비용이야 싸지. 좌우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도 자신의 재능을 꾸준히 갈고 닦으면, 이옥처럼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다.”

“형님, 관비가 활을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니까?”

윤홍제가 끼어들었다. 이옥은 원래 무관이었으니 싸울 수 있었지만, 나해는 날 때부터 관비일 뿐이니 비교하기란 무리였다.

“전에 말하지 않았나, 활에는 반상 귀천이 없네. 이 아이에게 재능이 있어 보여서 하는 말일세. 그리고 세상은 어찌 될지 모르지 않은가. 나해야, 이건 네 것이다.”

윤홍신은 그녀에게 새 활과 동개일습(筒一襲, 활집인 궁대와 화살집인 시복을 합한 말)을 주었다.

“어, 어머, 이걸 어찌 친네에게……!”

“앞으로 네 재능이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란 뜻이다.”

“물론이옵니다!”

윤홍신은 그녀에게 ‘다대포 궁녀’, 궁궐 궁(宮) 자가 아니고 활 궁(弓)자를 쓴 별명까지 붙여 주었고, 말을 탄 채 활을 쏘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아니, 첩사께서 네 활 솜씨를 보셨다고?”

나해의 말을 들은 춘돌이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보란 듯 동개일습을 착용한 채 그 앞에 섰다. 물론 다른 관속들이 보면 질투하거나 못마땅해 할 것 같았지만, 기분은 좋았다.

“그렇사옵습니다. 아저씨 덕에 활도 배웠는데 말입니다!”

나해는 그저 신났다. 춘돌은 어깨를 으쓱했다.

“첩사 나리한테서 새 활까지 받은 것이냐?”

“그렇사옵습니다.”

“혹시, 첩사 나리께서 너를 첩으로 삼으려고 환심 사고자 그러신 거 아닐까?”
춘돌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럴 리 없사옵습니다. 첩사 나리는 연세가 제 아버지뻘도 더 되는 분인데, 거기다 첩 삼으시려면 굳이 활까지 선물해 주실 필요 있겠사옵니까?”

나해의 나이가 이제 열여섯이니 시집 갈 때가 되긴 했다. 거기다 관비보다 관기를 시키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녀의 외모는 웬만한 기생보다도 빼어났다.

따라서 그녀로서도 그런 염려가 없지는 않았지만, 윤홍신이 왜 자신에게 그런 과격적인 대우를 해 주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활을 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은 좋았다.

“좌우간, 이제 활쏘기를 더 열심히 할 것이냐?”

“그러하옵습니다! 첩사 나리께서, 일과 끝나고 활터를 이용해도 된다고 하셨사옵니다! 과녁까지 여러 장 주셨사옵니다!”

윤홍신의 말은 옳았다. 정말 세상일은 어찌 될지 몰랐다. 하지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다.

“첩사 나리! 큰일이옵니다!”

어느 날, 한 군사가 혁혁거리며 관아로 달려왔다.

“무슨 일인가?”

“왜적이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사옵니다! 벌써 부산에서 전투가 시작 되었다고 하옵니다! 허나, 중과부적이라 언제 함락될지 모릅니다! 곧 다대포로도 올 것이옵니다!”

“뭣이라?”

윤홍신은 서둘러 군사와 백성들을 총동원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싸울 준비를 하라 일렀다.

“빨리 경상감영에 알려라! 경상우수영과 좌수영에는 벌써 파발이 갔겠지?”

“성문을 다 닫으라고 하고 왔사옵니다. 이대로 버텨야 하옵니까?”

윤홍제가 물었다. 그의 말대로, 다대포의 병력으로는 적들을 막아내기에 버거웠다. 군량과 무기는 둘째 치고라도, 적이 너무 많았다.

“일단, 성에서 최대한 버틸 준비를 해라. 돌이랑 수성 장비를 동원하고! 성벽 기어오르는 적에게는 꿰는 물이 가장 효과적이니까 물도 충분히 준비하라! 또한 주변에 있는 대나무를 모두 베어 죽창을 만들어라!”

“나리!”

나해가 윤홍신에게 달려갔다.

“뭘 하느냐? 넌 다른 관비들이랑 빨리 가서 물이나 길어라!”

윤홍제가 말했지만, 나해는 활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소녀도 싸우겠사옵니다! 나리께서 주신 활로요!”

“네가 어떻게 싸우느냐?”

“이옥 장군도, 관노의 몸으로 싸우지 않았사옵니까?”

“잠깐, 이옥 장군?”

순간, 윤홍신이 눈을 크게 뜨며 나해를 보았다.

“그래, 이옥 장군! 그래, 그 방법을 쓰자!”

“무슨 말씀이옵니까?”

윤홍제가 물었다.

“적의 허를 한 번 찔러 줄 필요가 있다. 병력을 저기 산길에 매복시킨다. 보통 적이라면, 해안선을 따라 성 쪽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 산에 군사들을 매복시켰

다가, 산길로 적을 유인해서 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전부터 산에서 훈련을 시키지 않았느냐!”

“되겠사옵니까?”

윤홍제는 아무래도 불안한 듯 말했다.

“해 봐야지. 적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잘해서 예봉을 꺾어 후퇴시키면, 무작정 성에서 버티는 것보다는 더 시간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빨리 사냥꾼들을 동원해서 덮을 놓으라고 해라!”

“헌데, 누가 왜군을 산길로 유인한단 말이옵니까?”

윤홍제가 말했다.

“소녀가 하겠사옵니다!”

나해가 손을 들었다.

“소녀, 어렸을 적부터 거길 많이 다녔기 때문에 거기 길은 훤히 옵니다!”

“위험하다!”

“적이 쳐들어왔는데,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사옵니까? 전에 말씀하셨잖 사옵니까,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니 재주를 갈고닦으며, 쓸 날을 기다리라고요! 지금이 그때이옵니다!”

윤홍신은 나해의 엄지손가락을 보았다. 활시위를 당길 때, 손을 보호하기 위해 엄지손가락에 깎지를 낀다. 그 때문에 활을 쏘는 사람은 그곳에 굳은살이 많이 박이게 된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명궁의 그것이었다.

“좋다. 빨리 산으로 가자!”

윤홍신은 자신의 말을 나해에게 주었다.

나해는 서둘러 말을 달려, 왜군들이 오고 있다는 길로 향했다.

“하앗!”

나해가 높은 목소리와 함께 천을 막대에 매달아서 흔들자, 척후인 왜군들이 금방 그녀를 보았다.

나해는 막대를 던져 버리고는 활을 들어 왜군의 깃대를 향해 쏘아 부러뜨렸다. 왜군들도 그녀의 활 솜씨에 놀랐는지 어리둥절해했다.

왜군 장수가 뭐라고 하자, 그녀 앞으로 부지깽이 비슷한 것을 든 군사들이 나섰다.

‘저, 저게 조총인가?’

나해는 재빠르게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왜군 측에서도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좋았어!”

나해는 다시 몸을 돌려 뒤를 향해 활을 날렸다.

활을 쏠 때도 여러 명이 한 군대를 향해 동시에 쏘듯, 조총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달리면서 활이나 조총을 쏘아 맞히기는 힘들다. 그녀를 향해 조총 소리, 활 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다행히 맞지는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산길로 말을 몰았다.

“이랏!”

나해는 다시 뒤에다 활을 쏘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봉에서 말을 탄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그가 자신에게 조총을 겨누었다.

“작!”

순간, 등에 강한 충격이 왔다. 그리고 균형 감각을 잃은 그녀는 곧장 덩불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돼, 됐어, 이 정도면……!”

나해는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적군이 매복조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곳은 사냥꾼 마을이었다.

“어머나?”

나해는 그리로 가는 적들을 보자 정신이 들었다.

역시, 윤희신의 말이 옳았다. 사냥꾼 마을은 조선군의 매복 지점보다 위쪽에 있다. 그곳에서라면 위에서 매복 군사들을 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사냥꾼 마을을 적이 알 리는 만무하므로, 누군가가 적에게 이번 작전을 알려주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조총이란 게 이런 거구나!”

뒤를 만져 보니, 첩판이 우그러들었고 박힌 총알이 만져졌다. 이런 조그만 쇠구슬로 사람을 죽이다니, 신기할 지경이었다.

나해가 출발하기 전, 윤희신은 그녀에게 화살이나 조총을 막도록 옷 밑에 두꺼운 첩판을 여러 겹 대라고 했다. 조총은 웬만한 갑옷도 가볍게 뚫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먼 거리에서 쏘았으니 다행히 그녀가 산 셈이다.

우그러진 첩판이 등에 배겨서, 그녀는 그것을 벗어 던졌다.

이 무렵, 왜군 부대는 사냥꾼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윤희신이 미리 사람들을 다대포 성으로 피신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군은 간자에게서 그 소식은 이미 들은 다음이었다. 이제 일제히 밀으로 내려가 매복하고 있는 군사들을 치는 일만 남았다.

그때였다.

“와아아!”

윤희신은 관노와 백성들까지 동원하여 일제히 썰매와 징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게 해, 이쪽 병력이 많다고 느끼도록 했다. 곧 왜군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짜라!”

윤희신의 신호와 함께 사방에서 왜군을 향해 화살이 쏟아졌다. 순식간에 수백 명이 쓰러졌다.

조선군이 숨어서 활만 쏘아대니 왜군들은 놀라 흩어졌고, 왜군 선봉대장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으나, 곧 그의 가슴에도 화살이 박히고 말았다.

대장을 잃은 왜군 부대는 우왕좌왕하다가 퇴각하였는데, 먼저 마을에 들어온 기병들이 들어오던 후속 부대 쪽으로 퇴각하는 바람에 마을 입구는 혼란에 빠졌으며 산길 밖으로 달아난 자들은 숲 여기저기에 사냥꾼들이 설치한 덫에 걸리기도 했다.

나해가 왜군에게 가기 직전, 윤희신은 자신이 직접 첩판을 들고 와서 화살을 막기 위해 옷 밑에 대라고 했다. 그러며 슬쩍 말했다.

“그 춘돌이라고, 너에게 활 가르쳐 준 사냥꾼 말이다. 그자는 왜군 간자다.”

“예?”

“셋!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는 낙동강과 통하는 곳이라 금방 강을 타고 상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군사 요지라고, 따라서 적국의 간자가 여기 장기간 머물면서 염탐할 수도 있다. 사냥꾼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도 되고, 잡은 맹수를 바친다는 명목으로 관아를 살피러 올 수도 있으니까.”

“한데, 어찌……?”

“몇 달 전에 내가 들고 있던 활이 수상했다. 활 손잡이 위쪽이 아래쪽보다 길다는 건, 왜인들 활의 특징이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너는 나서부터 여기서 자랐으니 간자는 아닐 테고, 그래서 네게 활을 만들어 줬다는 그 사냥꾼을 의심했다. 그 녀석이 네 환심을 사서 관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녀석에게 감시자를 붙였고, 사냥꾼들을 동원해 덫을 놓으라고 했는데 아니나다를까, 그 녀석이 함정 설치 끝나자마자 뭔가를 들고 왜군 쪽으로 갔다. 그러니, 그 작전을 역이용하려 한다.”

“어, 어떻게 하옵니까?”

“성으로 오는 길 중간에 우리 병력을 매복시킬 거라고 알려주면, 저들은 위에서 그 군사들을 칠 수 있도록 사냥꾼 마을로 먼저 갈 것이다. 그러니 실제로는 그 마을에 병력을 숨겨 두었다가, 적이 오면 친다.”

나해는 위쪽을 보았다. 불길과 함께 함성 소리, 조총 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이 직접 가서 돕고 싶었지만, 임무는 여기까지였다. 그런데 그때였다. 뭔가가 산에서 굴러 내려왔다.

“아, 아니?”

굴러 내려온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누군가 보니, 춘돌이었다. 왜군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었지만, 그녀는 금방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치, 척쇼(젠장)!”

춘돌, 아니 왜군 간자는 그녀를 향해 칼을 치켜들었다.

“조선말로 할까? 허튼수작 부러봤자 소용없어! 조금 있으면 우리 부대가 성을 점령할 거다!”

“웃기지 마!”

춘돌이 칼을 뽑아들어 치켜들고, 나해의 화살이 활시위에 닿은 때는 거의 동시였다.

“당신에게서 배운 활이야, 나를 속여? 행복해!”

물론, 나해가 춘돌과 싸운다면 승산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활이 있었다.

“옛정을 봐서 살려주겠어! 칼 버려!”

춘돌은 칼을 내려놓다가, 재빠르게 소매에서 비수를 꺼내 그녀에게 던졌다. 그녀 역시 몸이 날랜 편이라 피했지만, 춘돌이 다시 칼을 들고 그녀를 향해 휘둘렀다.

“까악!”

나해는 이를 피하다가 길 밖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칼에 맞지는 않았지만 화살을 모두 떨어뜨렸다.

“죽어라!”

춘돌이 달려왔다. 그가 윤희신의 피에 넘어가 선봉대가 당했다면, 그는 자기 군대에 돌아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 원한을 모두 나해에게 풀 듯 쫓아왔다.

“화살 다 떨어졌네?”

나해는 겨우 화살 두 대만 썩었을 뿐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그 첩판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가 따랐다. 여기에 조선군은 없으니 더 큰 일이었다.

문득, 이옥 장군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그는 깊은 숲으로 왜구를 끌어들였고 고려 활의 사정거리가 일본의 그것보다 길다는 점을 이용하여 적을 쏘아 맞혔다고 했다.

‘좋아, 나도 그 방법을 써야 해!’

나해는 돌을 들어 풀숲에 던졌다. 그러자 그쪽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하지만 춘돌은 오히려 그녀가 숨어 있는 쪽으로 왔다.

“그 따위 속임수에 넘어갈까봐? 나 보는데 돌을 던져?”

춘돌이 칼을 그녀가 있는 쪽으로 휘둘렀지만, 나해는 재빠르게 그에게 활을 쏘

왔다.

“이얍!”

그는 칼로 화살을 쳐냈다. 나해는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아직 있나? 그래봤자 헛수고야!”

춘돌이 칼로 나뭇가지들을 쳐내며 그녀를 두 동강 내려 하는 순간, 나해는 재빠르게 땅에 누우며 재빠르게 마지막 화살을 재고는 활시위를 당겼다. 누운 사람을 베려면 칼을 자신의 머리 위로 올려 내려쳐야만 하므로 그만큼의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어, 억!”

춘돌의 칼이 내려옴과 동시에 그 화살은 정확히 그의 가슴에 명중하였고, 그는 충격에 놀라 비틀거리다가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이, 이……!”

그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흘러나왔다. 나해는 주저앉은 채 그를 보았다. 그는 안간힘을 쓰다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나해가 성에 돌아왔을 때, 윤희신과 다른 군사들도 모두 돌아온 다음이었다. 매복 작전은 성공하였고 왜군은 선봉대장을 잃은 채 퇴각했다.

“나리, 야까는 놀라서 말씀드리지 못하였는데, 정말 송구하옵니다.”

나해는 뒤늦게 말했다. 춘돌이 왜군 간자였다니, 그녀는 자신의 활숨씨를 보여주고 싶어서, 경비가 허술한 곳으로 그를 안내하기까지 했다.

“네 잘못은 아니니 염려 마라. 거기다, 네가 춘돌인지 뭔지 하는 녀석을 활로 잡기까지 했다고? 큰 공을 세운 거다.”

나해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다. 그것도 스승이라 여겼던 자였다. 하지만 전란이 시작되었으니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다.

춘돌의 말대로 되었다. 전날의 승리로 시간을 하루 끝였지만, 원군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온 것은 부산진이 함락되었고 동래도 조금 있으면 함락될 것 같다는 소식, 그리고 전날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끌고 온 왜군뿐이었다.

윤홍신은 결연히 맞서기로 하였다. 한 번 쓴 작전을 또 쓸 수는 없으니, 이제는 성에서 최대한 버텨내야만 했다.

나해는 서둘러 윤홍신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된 거, 침사의 옆에서 싸우다가 죽기로 했다.

“형님, 피하는 게 좋겠사옵습니다! 어제 전투만 해도 충분히 좋은 전과를 올린 것이옵니다! 피하여 훗날을 도모합시다!”

윤홍제가 말했다. 왜군의 엄청난 군세는 도저히 당해내기 어려웠다.

“그럴 수 없다.”

“대체, 이 나라에 왜 충성을 하려는 것이옵니까!”

윤홍제가 분노에 차 외쳤다.

“나라가 형님에게 해준 게 뭡니까? 현감 하다가, 글을 몰라서 파직을 당하셨잖아요! 형님이 왜 글을 모르십니까? 30년도 넘게 관노 생활을 하느라 그런 거 아닙니까!”

“뭘, 뭣이옵니까?”

나해가 놀라며 물었다. 윤홍신이 관노였다니, 금시초문이었다.

“아니, 나해야, 듣고 있었느냐?”

“나, 나리.”

“끼어들지 마라!”

윤홍제가 말했다.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널 찾으려 했다. 나해야, 너는 피해라.”

“싫사옵니다! 나리 옆에서 싸우겠사옵니다! 나리는 이 천한 것에게 활도 쏘게 해 주시고, 말까지 태워 주시지 않았사옵니까!”

“내가 너에게 그런 기회를 준 것은, 나도 관노였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는 인종 임금의 외삼촌이셨다. 하지만, 을사년(1545년)에 윤원형(尹元衡) 세력의 모함을 받아 대역죄로 사사되셨다. 나는 나이가 어려 죽지는 않고, 30년이 넘게 관노로 살았단다.”

“어머나, 세상에…….”

“나중에 아버지가 복권되어 나도 풀려나 현감 벼슬을 얻었지만, 관노 생활하는

동안 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파직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좌상(류성룡, 柳成龍) 대감 덕에 다대포 첨사가 되었지. 그러니 내가,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니 재주가 있으면 가끔이라도 갈고뚫으라고 네게 말한 거란다.”

그제야 나해는 윤흥신이 왜 그녀의 재능을 격려해 주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아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피하지 않겠다. 첨사로서, 무관으로서 나라의 관문을 지키지 않고 피한다면, 겨우 복권된 가문 명예를 다시 실추시킬 것이다!”

곧, 왜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윤흥신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 활을 당기며 맞섰다. 그러나 적보다 병력도 무기도, 실력도 뒤떨어지는 수비군은 얼마 버티지 못하였다. 곧 화살과 창검은 물론 돌까지 떨어졌다.

“나해야, 피해라!”

윤흥신은 화살이 다 떨어지자, 객사 기왓장을 벗겨 던지며 싸웠다.

“내가 보기에 너는 아직 어리고, 재주를 다 쓸 때가 아니다! 지금은 도망쳐라! 너라면 어디서든,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적들에게 다대포 궁녀의 실력을 보여줘라!”

“아니 되웁니다!”

나해가 기왓장을 가지러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윤흥신이 섬뜩한 비명을 질렀다.

“으윽!”

“나리!”

“형님!”

“이게 조, 조총이구나!”

“형님, 우!”

기왓장을 들고 오던 윤흥제가 서둘러 달려와 윤흥신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곧 그의 가슴에도 총알이 박히고 말았다. 방어선을 뚫은 왜군의 일제 사격이 그들을 향했던 것이다.

“나리!”

다행히 총에 맞지 않은 나해가 소리쳤지만, 윤흥신은 대답이 없었다. 눈을 부릅

뜯 채였다.

“히히힝!”

뒤를 돌아보자, 윤흥신의 말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침사의 뜻을 그 말도 안 모
양이었다.

“침사 나리……!”

말에 탄 채 뒤를 돌아보니, 윤흥신과 윤흥제는 끌어안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나리, 잊지 않겠사옵니다! 절대로요!”

말은 달리기 시작했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이 나혜의 눈물을 윤흥신 쪽으로 날
려 주었다.

승학산의 하얀 거인 - 산문 우수

이 선 희

옛날 옛적에 풀도 나무도, 아무것도 없는 어느 이름 없는 산에 하얀 더벅머리를 한 거인이 살았어요. 거인의 몸은 아주 커다래서, 이름 없는 산보다 조금 작았답니다. 산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늘 거인을 발견하면 줄행랑을 쳤기 때문에, 거인은 사람들을 피해 산의 뒤쪽에 숨어 있곤 했어요.

햇살이 따듯한 어느 날, 늘 그래왔듯 거인은 산 뒤에 숨어서 하하 호호 웃음소리를 내며 물려다니는 인간들을 몰래 바라봤어요.

‘왜 나만 이렇게 몸집이 클까? 그리고 언제부터 나는 가족이나 친구도 하나 없이 여기에 있는 걸까? 나도 친구를 갖고 싶어.’

그리고 그날 밤 거인은 산에 기대어 외로움의 눈물을 쏟아냈어요.

며칠 후, 거인이 눈물을 흘린 자리에는 작은 나무들이 자라났어요.

‘이게 뭐지?’

거인은 자라난 나무들을 보고 한참을 궁금해하다가 이내 생각을 접었어요. 조금 뒤 산에 기대 낮잠을 자던 거인은, 친구가 생겨 즐겁게 노는 꿈을 꾸었어요. 문득 꿈에서 깨어났을 때, 거인은 혼자라는 게 또다시 외로워져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 놀랍게도 눈물을 흘린 그곳에 작은 나무들이 새롭게 자라났어요.

‘내 눈물이 스며들었던 부분에서 나무가 자라는구나!’

거인은 자신의 눈물이 떨어진 흙에서 나무들이 자라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인은 인간들이 ‘낙동강’ 이라고 부르는, 산 옆의 강에서 물을 떠와서 자라난 나무들에게 뿌려보기로 했어요. 손바닥을 접시처럼 둥글게 만들고, 강물을 길어 나무 근처에 골고루 뿌려 주다 보니 어느새 숲이 만들어졌어요. 수년간 비가 내려도 자라지 않던 나무들이 거인이 주는 물에만 쭉쭉 자라났기 때문에, 거인은 자신에게 남다른 재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린 나무꾼이 이름 없는 산에 찾아왔

어요. 거인은 언제나처럼 산 뒤로 숨어서 나무꾼을 지켜봤어요.

“우와! 여기 숲이 있었던 걸 왜 몰랐을까? 편백나무랑 삼나무가 아주 질이 좋아 보이네. 오늘은 무리해서라도 나무를 많이 해 가야겠다!”

나무꾼은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며 기쁘게 나무에 도끼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가꾼 숲에 정이 들었던 거인은, 나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불쑥 나무꾼 앞으로 성큼 걸어 나와서 소리쳤어요.

“건, 건드리지 마! 내가 키운 소중한 나무들이야!”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깜짝 놀란 나무꾼은 손에서 도끼를 놓치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어요. 그러나 거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무꾼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나무꾼은 손으로 바지의 흠을 툭툭 털면서 말했어요.

“주인이 있는 나무였구나. 도둑질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미안해.”

담담하게 사과하는 나무꾼의 반응에 놀란 거인이 물었어요.

“넌 내가 무섭지 않아? 보통 인간들은 날 보기만 하면 도망치기 바쁘던데...”

나무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거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직접 보게 되니 놀란 건 사실이야. 그런데 나무를 소중히 키우는 거인이라니! 무서울 이유가 없잖아? 사실 나는 정말 무서운 게 따로 있어서 겁이 없는 편이긴 해.”

나무꾼의 대답에 소녀는 웬지 모를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겁 없는 나무꾼이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나보다 무서운 게 뭐야?”

나무꾼은 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난 배가 고프게 제일 무서워. 사실 난 몸이 안 좋아서 자주 나무를 못 하거든. 나무를 베고 장에 가져가서 팔아야, 그 돈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어쨌든 만나서 반가웠어, 거인아. 나는 더 배가 고파지기 전에 다른 곳에 나무를 베러 가야겠다. 안녕!”

거인은 나무꾼이 딱하다고 생각했어요.

‘배고픔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무가 급하게 필요한가 봐. 나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눠준 인간인데, 보답을 하고 싶어.’

그래서 거인은 도끼와 지게를 챙겨 떠나려는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난 어쩌다 보니 숲을 가꾼 것뿐이야. 나무들을 키우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거든. 정이 들긴 했지만, 나보단 너에게 나무가 더 필요해 보여. 전부 베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와서 가져가도 괜찮아. 또 기르면 되니까.”

거인의 말에 나무꾼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거인아! 네 덕분에 당분간 굶을 걱정은 없겠는걸!”

그리고 신난 나무꾼은 거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삼나무와 편백나무를 골고루 엮은 지계를 등에 지고 행복하게 떠나는 나무꾼의 뒷모습을 보며 거인은 생각했어요.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인간이 생기다니 너무 기쁘다. 나무꾼을 위해서라도 나무를 더 키워야겠어. 물을 쥐본 적 없는 산의 윗부분에도 물을 뿌려서 더 많은 나무를 키워야겠다.’

그 후로 거인은 열심히 두 손으로 낙동강의 물을 떠서, 산의 정상까지 골고루 뿌려주었어요. 거인의 신비한 재주로, 이름 없는 산에는 갖가지 식물들이 무성히 자라났어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 맨바닥의 흙이 드러났던 산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푸르른 기운으로 가득 찼답니다. 풀과 나무, 꽃들이 산에 자라나자, 자연스레 동물들도 산에 살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이 물에 젖을까 봐, 거인은 강물을 뿌리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거인의 재주로 태어난 식물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만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랐답니다.

나무꾼은 며칠에 한 번씩 이름 없는 산에 찾아왔어요. 나무를 베러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순전히 거인과 이야기만 나누려고 찾아오기도 했어요. 나무꾼은 늘 거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네가 키워준 나무들 덕분에 내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밥을 잘 챙겨 먹으니 아팠던 몸도 많이 건강해졌어! 모든 게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거인아. 넌 좋은 친구야.”

거인은 ‘친구’ 라는 말에 아주 기뻐했어요.

“난 늘 혼자였는데, 네가 친구가 되어 준 덕분에 이제 외롭지 않아. 정말 고마워.”

나무꾼은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너처럼 좋은 녀석에게 친구가 나밖에 없다니 말도 안 돼! 마을 사람들에게 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마냥 무서워하더라고! 너는 그저 커다란 사람

일 뿐인데!”

거인은 자신을 위해 화를 내주는 나무꾼이 무척 고마웠어요.

쌓여가는 거인과 나무꾼의 우정만큼, 시간도 흐르고 흘러 가을이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가을날, 거인은 산 정상 부분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산의 정상 쪽에 멋들어진 억새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나무가 아니라, 뭔가 보드라워 보이는 풀들이 한가득 자랐네. 무슨 풀인지는 몰라도 아름답다.’

거인이 억새밭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왔어, 거인아!”

거인은 반가운 나무꾼의 목소리에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나무꾼을 보았는데, 나무꾼의 지게에 익숙한 풀 한 뭉텅이가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산 정상에 가득한 그 보드라운 풀과 같은 풀이었어요.

“안녕! 그런데, 네가 오늘 가져온 그 풀은 무슨 풀이야?”

나무꾼은 지게에 묶인 억새를 하나 꺼내서 휘휘 휘두르며 대답했어요.

“이거? 이걸 억새라고 해. 신기하게 생겼지? 마침 억새가 필요했는데 오는 길에 우연히 찾아서 베어 왔어!”

거인은 나무꾼에게 억새가 필요하다는 말에 마음이 설렘이 들었어요. 거인에게 억새를 선물 받고 기뻐할 나무꾼을 생각하니, 들뜬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억새라고 하는구나. 넌 억새가 왜 필요한 거야? 얼마나 필요해?”

나무꾼은 흔들던 억새를 지게에 다시 묶으며 대답했어요.

“마을에 사는 내 친구들 몇 명이 벌에 쏘였는데, 이 억새가 치료할 때 쓰인다나 봐. 가을이라 억새가 어딘가 자라있을 거라며, 의원님이 나무 베러 가는 길에 억새를 보게 되면 가져다 달라고 하셨어. 아, 벌은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이고, 의원님은 내가 아플 때 몸을 치료해주는 분이야. 그리고 억새는 이 정도면 충분해.”

친절하고 자세한 나무꾼의 설명에 거인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직접 키운 억새를 선물하지 못하게 돼서 내심 아쉬웠어요. 나무꾼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신나게 말했어요.

“거인아! 혹시 세상에 대해 공부해볼 생각은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나무 베는 것뿐이지만, 의원님이라면 네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거야!”

나무꾼이 그렇게 말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나무꾼과 의원님이 함께 찾아왔어요. 의원님은 거인을 보고,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허허...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나는 마을 사람들이 헛것을 본 줄 알았는데! 참 신기한 일도 다 있구나.”

거인은 의원이 자신을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아서 신기했어요.

그날부터, 의원님은 거인에게 인간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식물과 동물들의 이름 등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어요. 그렇게 의원님과 나무꾼은 거인이 모르는, 산 밖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거인은 의원님에게 물어봤어요.

“의원님은 왜 저를 가르쳐주시나요? 귀찮지 않으세요?”

의원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인 너도 나무꾼 녀석에게 먼저 나무를 선물했지? 그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야. 서로서로 돕고 살다 보면 행복이 배가 되는 법이야. 네가 사람들과 섞여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그런 날이 올까요?”

“물론이지!”

거인은 어느새 의원님과도 좋은 친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무꾼 없이 의원님 혼자서만 거인을 만나러 오기 시작했어요. 거인이 나무꾼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묻자, 의원님이 말했어요.

“가을은 낮과 밤의 쌀쌀함이 크게 차이가 나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 그 녀석을 포함해서 마을 사람들이 죄다 감기에 걸려버렸단다. 큰일이야.”

며칠 전, 의원님에게 ‘감기’ 라는 병에 대해 배웠던 거인은 나무꾼이 걱정되었어요. 거인이 감기를 낫게 할 방법에 대해 물어보자, 의원님이 대답했어요.

“억새의 줄기와 뿌리를 구하면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을 만들 수 있는데, 마을 사람들을 전부 먹일 억새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

거인은 산 정상에 가득 찬 억새밭이 떠올랐어요.

“의원님! 억새라면 이 산꼭대기에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인은 의원님을 자신의 손바닥에 얹고, 산 정상에 올려주었어요. 의원님은 억새밭을 보고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역사라니! 마을 사람들 전부를 고쳐주고도 아주 많이 남겠구나! 거인아,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거인은 역사를 단숨에 뜯어서 한가득 품에 안고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의 집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의원님은 거인에게 받은 역사들의 줄기와 뿌리를 섞어 진하게 달여 감기약을 만들었어요. 그 약으로 마을 사람들의 감기를 낮게 해주었어요.

건강해진 마을 사람들은 의원님에게 아주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의원님은 착한 거인이 열심히 기른 역사를 기꺼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덕분이라고 설명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거인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나무꾼과 마을 사람들은 거인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할지 고민했답니다. 나무꾼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며, 신나서 말했어요.

“음, 그리고 보니 눈까지 덮어버리는 거인의 하얀 더벅머리가 무척 답답하고 더워 보였어요. 아! 그리고 거인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건 어떨까요?”

나무꾼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짚으로 새끼줄을 길게, 아주 길게 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거인만을 위한 아주 길고 튼튼한 머리끈이 생겼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만든 긴 새끼줄을 들고 거인을 만나러 갔어요. 거인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자 놀랐지만,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건내는 마을 사람들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거인을 눕히고, 힘을 합쳐서 거인의 머리카락을 양 갈래머리로 묶어주었어요. 하얀 머리카락을 양 갈래머리로 묶자, 마치 날개를 편 학처럼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거인의 뒷모습을 보면 마치 새하얀 학이 나는 것 같으니, ‘승학(乘鶴)’이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또 다른 마을 사람이 덧붙여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름 없는 산에게도 거인의 이름을 따서 ‘승학산(乘鶴山)’이라는 이름을 붙여줍시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거인에게 승학이라는 이름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

람들은 더 이상 거인을 무서워하지 않고, 승학산의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을 산책했어요.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 아름다운 억새밭을 보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어요.

이듬해 어느 봄날, 어느 스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산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승학산을 보았어요.

‘저곳에는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저렇게 아름다운 산으로 바뀔 리는 없지. 내가 잠시 착각을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 후, 스님은 마을에 들러 근처에 있던 마을 사람에게 산의 이름을 물었어요.

“저 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마을 사람은 착한 승학이를 떠올리고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승학산입니다!”

정상영업중 - 산문 가작

윤 미 영

'카톡. 뽀족한 소리가 밤 열 시의 정적을 깨운다. 친구가 여태 기다리다가 간다는 내용이다. 일을 하다가 카페의 그녀를 잊고 있었다. 갑자기 한 대 얻어 맞은 사람처럼 급히 그곳으로 차를 몰면서 발목을 잡는 신호등 불빛만 팬스레 재촉한다.

십여 분 만에 다다랐다. 늦은 시간이라 주변은 한산하다. 멀찍이 낮익은 카페의 자갈마당이 보인다. 밤공기 나무 아래에 내려와 그녀의 하얀 블라우스 자락이 새초롬하다. 갑갑해서 밖으로 나왔다며 웃어준다. 그녀의 낭랑한 목소리가 반겨준다. 피곤할텐데 얼굴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한 마디의 말이 바빴던 하루의 위로가 되어준다.

어머니들에게 한글수업을 하고 있는 그녀다. 하루 동안 있었던 뒷담화와 감동의 보따리를 쏙쏙히 풀어낸다. 폰에 담아온 어머니들의 밝은 모습도 보여준다. 점점 익어가는 어머니들의 한글숨씨가 저마다 살아온 삶의 모습 만큼이나 다양한 글씨체로 꽃이 피어 훈훈하다.

여든에 겨우 한글을 깨쳤다는 김어머니의 이야기가 앞장을 선다. 한글을 4년 동안 배워서 처음으로 시를 썼단다. 여백은 화려한 꽃밭이다. 굵게 주름진 손끝에서 나온 게 맞을까 싶을 만큼 섬세하고 멋지다. 글자를 배우지 못한 설움에 눈물겨웠던 시간들을 한 땀 한 땀 풀어낸 인생의 풍경화다. 이제사 세상이 보이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산다는 어머니의 잔잔한 미소 곁으로 한글전도사인 그녀의 눈빛이 보랏빛 송엽국처럼 맑게 빛난다. 그녀를 보면 '행복은 습관' 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누구나 갈망하는 행복을 소소한 것에서 찾는 것이 생활화된 일상의 연속이다. 작은 행복의 결정체는 삶의 틈새마다 있다고 말해주는 그녀는 내 삶의 방향지시등 같다.

카페는 얼마 전 수리를 하더니 마당에 싱싱한 나무가 많아졌다. 늦은 밤까지 끊어질 듯 맴도는 두 여자의 수다를 주워들으며 잎을 간간이 흔들여 준다. 장단을 맞추는 듯 흔들거린다. 카페를 찾는 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마당을 빠져나갈 때까지 손 흔들여 주는 수문장 노릇을 하는 나무다.

하얀 조명 하나가 “정상영업중” 이라는 입간판을 비춘다. 스케치북 크기에 직접 새겨 놓은 다섯 글자가 눈에 띈다. 주인장은 저것을 내걸기 위해 노심초사 공들여 수리를 하고 손님을 기다렸을 것이다. 카페는 전보다 환해지고 아늑해졌다. 그래서 카페든 사람이든 가끔은 ‘내부수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옆에서 곱슬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친구에게 물어본다. “우리도 오늘 정상영업중이었지?” “그래, 우리야 늘 쉬지 않고 정상영업중이지.” 그녀의 목젓을 타고 올라온 몇 마디가 무겁게 땅으로 곤두박질한다.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다. ‘앞으로 언제까지 정상영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들이는 허허롭게 웃었다. 그녀가 자작시를 나직히 들려준다. 몸은 피곤해도 정신은 맑아지는 시간이다. 소소한 이야기들 속으로 조명이 하나 둘 꺼져간다. 삼십여 년 지기의 정도 밤의 그림자처럼 낮게 깔린다.

살면서 어느 날은 ‘내부수리중, 금일은 휴업’ 이라고 삶의 문 앞에 내걸고 싶다. 아침이면 무의식에 기지개 켜는 몸을 더 재우고 싶다. 일도, 그 무엇도 다 내려 놓고 떠나고 싶을 때가 많아진다. 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다. 매번 생각만 켜를 동심원처럼 부풀릴 뿐이다. 언젠가 그 날을 위해 채비라도 해 두면 어떨까. 작은 손가방 하나면 괜찮을 거 같다. 또 무엇에 발목이 잡히기 전에...

“낮선 곳이 그림다” 라는 하정아 작가 이야기를 가끔 한다. 지치고 힘든 날이다. 가끔은 낮선 곳이 그림다.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곳에서 잠시 마음을 쉬어 본 사람이라면, 그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지 안다. 그런 곳에서 자신의 외로움도 풀고 싶었던 작가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주억거린다. 사람은 지쳤을 때 일탈을 꿈꾼다. 하지만 일탈은 다시 돌아옴을 전제로 해야 한다.

우리는 달력을 들여다 보며 여행을 함께 가자고 눈을 맞춘다. 낮선 곳에서 느끼는 행복감의 무게는 사람들마다 다를 것이다. 이른 저녁을 먹고 어스름이 내리기 전 한 시간 정도 호수를 산책을 하며 어떨까. 생각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앞서간다. 여행자와 정서가 잘 맞을 일몰을 기다릴 것이다.

언젠가 보았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어 볼까. 고도

를 기다리던 두 주인공 앞에, 어느 날 한 소년 전령이 와서 말했지. 오늘은 못 오고 내일은 꼭 온다는 전갈만 보냈던 그 정체 모를 고도. 작가인 베게트도 모른다는 고도를 노을 속에서 기다리고 싶다. 어쩌면 우리네의 삶도 막연한 기다림의 연속이 아니던가.

그 날을 위해 오늘도 ‘정상영업중’ 이라는 간판을 내건다.